

8월 둘째주 '전력수요 최고' 예상

이른 무더위 대비 전력 공급력 상당 부분 증가 정부, 26일-9월15일 여름 수급대책기간 운영

예년보다 더운 여름이 예상되지만 새 원전 투입 등으로 전력 공급력이 상당 부분 늘어나 올여름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을 때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올여름 여름 전력수급대책 기간을 6월2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상 전망 자료와 전력 사용 행태 분석 등을 바탕으

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시경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부가 예상한 이 시점의 전력 수요는 92.7~97.8GW(기가와트)다.

가장 낮은 92.7GW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기준전망'이다.

'상향 전망'인 97.8GW는 날씨가 더워 전력 수요는 커진 가운데 남부 지역 날씨까지 흐려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아져 전력 수급에 더 큰 긴장이

가해지는 상황을 가정에 산출됐다.

여름 전력 최대 수요는 2019년 90.3GW, 2020년 89.1GW, 2021년 91.1GW, 2022년 93.0GW로 높아지는 추세다.

최대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난해보다 전력 공급 능력이 비교적 크게 늘어 여름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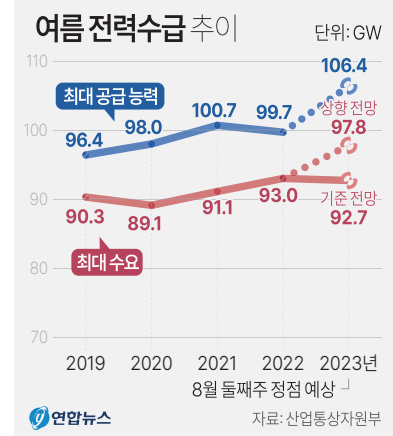
올여름 전력 최대 공급 능력은 역대 최고 수준인 106.4GW다. 지난해의 99.7GW보다 6.7GW(6.7%)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신한울 원전 1호기(1.4GW)가 가동에 들어갔고, 지난해 여름 정비를 가동해 멈췄던 일부 다른 원전도 이번 여름에는 가동돼 원전에 서만 작년보다 2.8GW의 공급 능력이

늘었다. 공급 예비력은 기준 전망 시 1.29%(예비력 13.7GW), 상향 전망 시 8.1%(예비력 86GW)이다. 총공급 능력 대비 예비 전력 비율을 뜻하는 공급 예비력은 일반적으로 10%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본다.

아울러 정부는 예상 범위를 넘는 심각한 더위로 전력 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거나 일부 발전기가 고장 나는 것과 같은 극단적 비상 상황에서도 사전에 약속된 기업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수요 감축 등의 방식으로 7.6G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왔다 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상 패턴이 변해 이른 더위가 찾아와 최대 전력 수



투데이경제

호남통계청,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호남지방통계청은 전국 및 지역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7월21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의 약 6만9천개 사업(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등 6종의 연간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응답 부담을 경감하는 윈윈조사 방식이다. 인터넷 등 비대면 응답도 가능하다.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사업실적 등과 매장 면적, 객실(석) 수, 연간 제품별 출하액 등 업종별 특성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산업별 구조변화, 국민경제총계(GDP) 등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수립 및 주요 경제지표 편제 등에 활용되며 올해 12월 공표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4일 70여명의 지역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 재발에 금감원,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강화

특별단속반, 12월까지 온라인카페 등 점검 조사 착수

지난 4월 말 벌어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유사한 '동시 하한가' 사태가 14일 주식 시장에서 재발하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특별 단속 강화에 나섰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설치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방립 등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하자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특별단속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 사항을 추출한 뒤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번 5종목의 하한가 사태도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런 강력한 입장은 방립, 동일산업 등 총 5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 14일 거의 동시에 일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며, 남부지역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관해 해당자에 대한 출국 금지나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식 관련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가 의혹 선상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해 필요시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카페 게시물이나 제보 등을 통해 입수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하고, 600개 이상의 유사 투자자문업자, 미신고·미등록 업체 대상 일제 점검과 양행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와 협업으로 점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기획 및 테마 조사도 확대한다. 이미 불법 공모도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이상 과열 업종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한 호재가 없이 장기간 지속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TP "中企 스마트제조 혁신 총력"

예산 20억 투입 '광주형 제조혁신계획' 수립

광주테크노파크는 15일 "광주시와 함께 20억원의 지방예산을 투입한 '2023년 광주형 스마트제조혁신계획'을 수립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정부 예산에는 스마트제조혁신 '기초' 사업 지원이 제외되며 전년 대비 국비 지원금의 대폭 삭감됐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미래공장의 선점에 반드시 기초사업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 지자체 예산만으로 기초사업을 추진했다. 동시에 대

기업이 주도하는 대중소상생형사업을 지역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관련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약 70여명의 지역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대기업이 기술과 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최대 10%까지(최대 2천만원) 지원하는 형태다. 설명회에는 운영기관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및 대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기초'와 '고도화' 단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주요 사례를 안내, 스마트공장에 대한 내용 이해와 구축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그간 수혜받은 기업의 성과분석과 정책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결집하고 광주의 모빌리티, 가전, 광융합, 스마트부리 등 대표산업이 '광주형 스마트제조혁신 로드맵'을 통해 스마트화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문진원 '디지털 활용 문제해결 공모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8월14일까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지역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광주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제안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및 사회 문제해결에 기여 정도 등의 평가를 통해 총 7건을 선정해 총 8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농어촌공, 침수 우려 지역 정비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침수 우려 지역의 주요 배수로 정비와 준설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해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배수로 일제정비 및 준설사업은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국고 15억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농경지 하류부 배수개선사업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가와 시설하우스 및 타작물 밀집지역을 포함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했으며, 10개 시·군, 13개 지구의 배수로 38km에 대해 정비 및 퇴적도 9만1천 500m³가 준설된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침수 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농경환경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상무지구 상가 (매매)

▶ 중심 상업지구

(6층, 7층) = 140평

시세 → 14억

급매 6억8천

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

장성토지 매매

▶ 장성호(댐) - 5분

광주 - 20분

토목공사 완료

6m 도로접

(100평, 150평, 200평 가능)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광산구 연산동 (근린시설) ▶ 감정가 29억 → 최저가 20억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정가 50억 → 최저가 28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정가 31억 → 최저가 22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2천
	북구 유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19억

010-6670-9800